여름휴가는 치유와 즐거움이 공존하는 청정 바다 완도로!

12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공영민 군수는 최근 폭염경보가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7일 읍·면 재난업무 팀장과 담당자 대상 폭염·풍수해 대비 집합교육에 참석해 군민 안전을 위한 폭염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 할 것을 지시했다.

군은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난 문자(일 2회), 마을 방송(일 3회 이상), 차량 가두방송과 취약 시간대 순찰, 시가지 살수차 운영 등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체감온도가 최고 33도에 달하는 무더위 시간대에도 농작업이 지속되면서 지난 7월 10일 기준 3명의 관내 온열 환자가 발생했다.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은 '읍면 행정지원담당관'을 통한 현장 대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 행정지원담당관'은 본청 간부와 직원으로 구성돼 담당 읍면의 폭염대응 활동을 독려하고, 현장에서 폭염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 질환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온열질환 민감군과 취약 시간대에 영농작업을 하는 고령 농업인을 파악해 폭염행동요령 대면 교육과 취약 시간대 농작업 자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온열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영민 군수는 "폭염대책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역할은 행정이 주도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낮 위험 시간대는 영농작업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폭염 국민행동요령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폭염 대응책 강도 높게 추진 주문

행정지원담당관 통해 읍면 폭염대책 지원, 온열환자 예방 총력

광양시, 방학 중 도시락 배달비 지원

15~16일 이틀간 신청 접수… 전용 링크 통해 신청 가능

광양시가 여름방학 기간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을 우려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점심 도시락 배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방학 중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인 자녀의 식사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락은 방학 기간 급식지원 위탁업체인 '시니어클럽 운영 엄마손밥상 2호점'에서 영양 식단에 따라 준비해 제공하며, 비용은 신청 가구가 부담한다. 광양시가 직접 고용한 배달원이 각 가정의 문 앞까지 도시락을 전달하고, 시는 총 11회에 걸쳐 1회당 2,000~3,000원의 배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이틀간이며,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50가구다. 신청은 전용 링크(https://naver.me/5dAeNgos)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여성가족과 가족돌봄팀(☎061-797-269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희 광양시 여성가족과장은 "여름방학 동안 맞벌이 가정의 자녀 식사 고민을 해결하고자 마련한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청년 마음 치유 돕는 '온기우편함' 설치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청년들의 정서적 건강 증진을 위해, 사단법인 온기와 손잡고 무안복합문화센터 1층과 무안군 청년플랫폼에 '온기우편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온기우편함'은 청년들이 익명으로 작성한 고민 편지를 넣으면, 자원봉사자가 직접 손 글씨로 답장을 적어 우편으로 보내주는 정서 지원 사업이다.

'사단법인 온기'는 사회 구성원의 우울감 완화, 정신 건강 회복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 현재 전국 84곳에 온기우편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라남도 지자체 중 청년센터 내 우편함을 설치한 곳은 무안군이 유일하다.

김산 무안군수는 "온기우편함이 청년들이 고민을 편안하게 털어놓고 정성 어린 공감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안군 제공

구례군,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중간보고회 개최

전남 구례군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 애호박, 매실을 활용해 추진 중인 가공제품 개발 용역의 중간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가공센터 사용자단체 회원 등 25명이 참석했으며 산수유 프로틴볼, 매실 프로틴볼, 애호박 스프, 애호박 피클, 산수유·매실 스틱젤리 등 5종의 시제품이 소개되고 시식 평가도 함께 진행됐다. 한편, 용역 완료 후에는 관심 있는 가공센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기술 전수 교육을 실시하고, 제품 생산과 판매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례/한정호 기자

화순군, 가뭄 대비 농업용 관정 점검 선제적 대응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1일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농업용 관정 가동 점검과 유지보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관내 농업용 관정은 총 564개소로 이 중 정상 가동 중인 관정은 545개소(96.6%), 정비 필요 관정은 19개소(3.4%)로 집계됐다.

정비가 필요한 관정에 대해서는 현장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을 통해 즉각 수시 정비를 추진 중이며, 특히 노후, 고갈, 전기 시설 불량 등으로 활용이 어려운 관정에 대해서 긴급 보수 및 대체 관정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박종옥 건설교통실장은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 대응과 관정 정비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화순/김종환 기자